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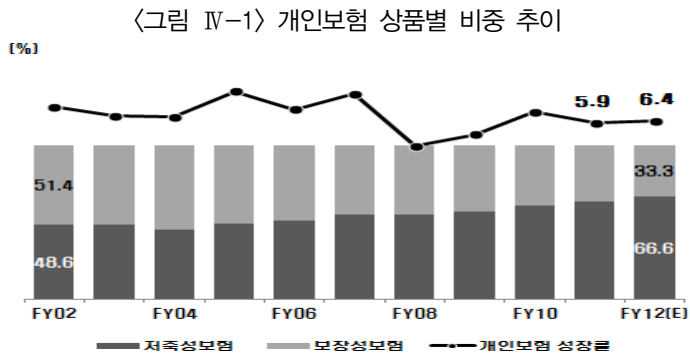
IV. 국내보험시장

1. 생명보험

가. 개인보험

■ FY2012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1 보다 0.5%p 높은 6.4% 증가(농협생명보험 포함 시 18.1%)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2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보장성보험의 플러스 성장 전환과 경험생명표 개정¹⁸⁾, 세제개편¹⁹⁾ 등으로 저축성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으로 보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2012년부터 제7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사망률 개선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전 연금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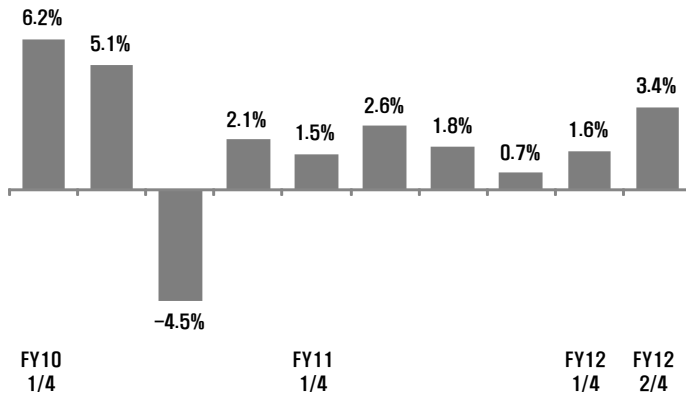
19)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3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 전 수요도 크게 증가함.

- FY201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3.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개인보험 중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하면서 저축성보험 비중은 FY2012, FY2013 각각 66.6%, 67.3%를 나타내는 등 확대추세가 지속될 것임.

1) 보장성보험(종신·CI·건강) 현황과 전망

- FY201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유지율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1.1% 증가(농협생명 포함 시 6.4%)하면서 FY2007 이후 5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2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1.6% 증가하였으며, FY2011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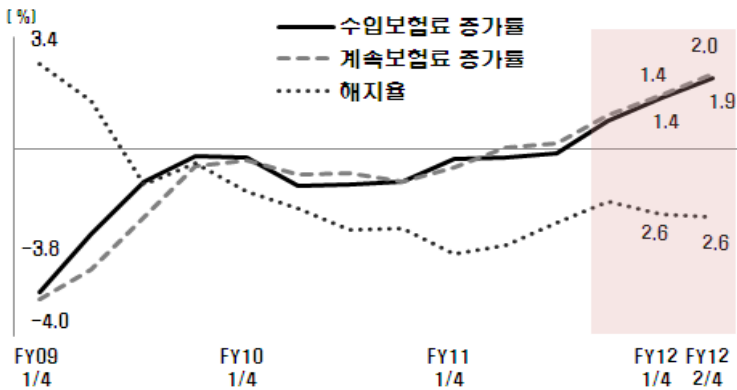
〈그림 IV-2〉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주: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상반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율 개선으로 계속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FY2009 3%대를 기록하던 보장성보험 해지율은 FY2010 2/4분기 이후 2.5%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IV-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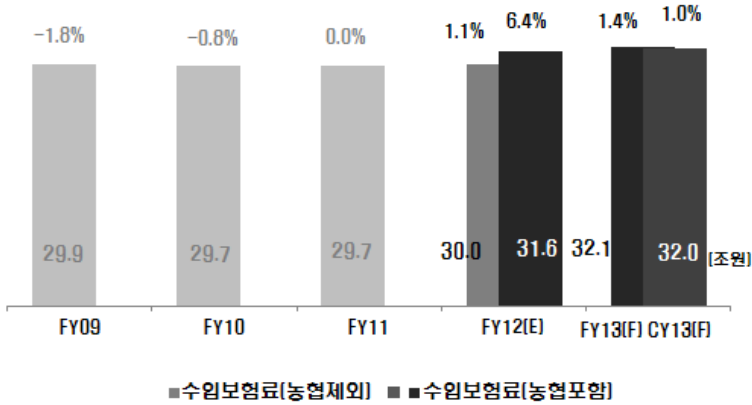


주: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과 신상품 출시를 통한 시장확대 노력으로 FY2012에 비해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의 계속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FY2013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는 FY2010 이후 활발했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며,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FY2013에는 초회보험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으로 저축성보험 쓸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4〉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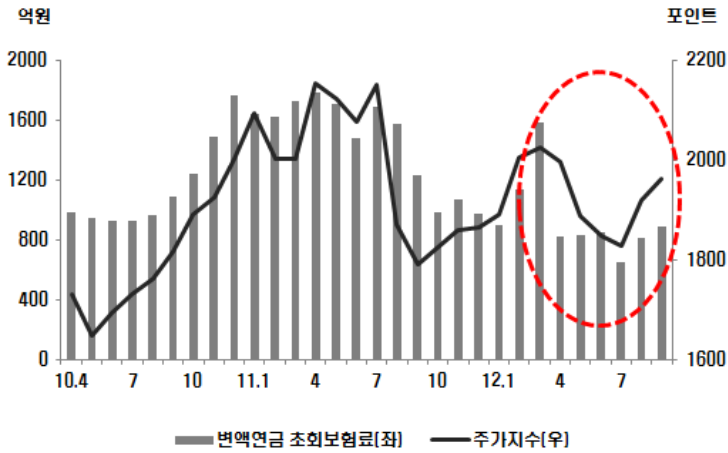
주: FY2013(F)은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 그러나 FY2013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2) 저축성보험(생사혼합 · 생존 · 변액) 현황과 전망

- FY2012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환경과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한 일반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9.5%(농협생명 포함 시 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2 상반기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경험생명표 개정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고성장한 반면 변액저축성보험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7.0%(농협생명 포함 시 43.2%) 증가함.
 - FY2012 상반기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약세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으로 감소세를 유지, 3.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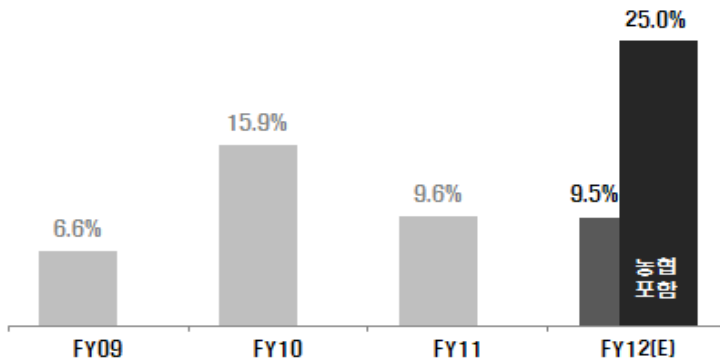
〈그림 IV-5〉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 FY2012 하반기에도 금리수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개편안 등 제도적 요인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 지속이 예상됨.

〈그림 IV-6〉 저축성보험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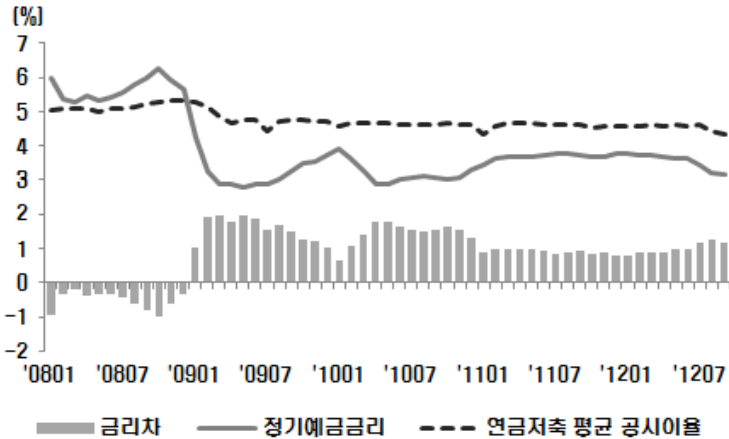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은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과 세제혜택 등으로

FY2010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한 후 FY2011에는 전년동기대비 16.3%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FY2012 상반기에는 44.5%(농협생명 포함 시 80.3%)의 높은 증가세를 회복함.

-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²⁰⁾와 이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으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경쟁력이 또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저축성보험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공시이율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당국의 안정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V-7〉 연금저축 평균 공시이율 추이



주: 정기에금금리는 가중평균 금리임.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0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1에는 5.0% 증가에 그쳤으나 FY2012 상반기에는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 전 가입 확대로 52.8% (농협생명 포함 시 75.9%)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13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FY2012 하반기에는 즉시연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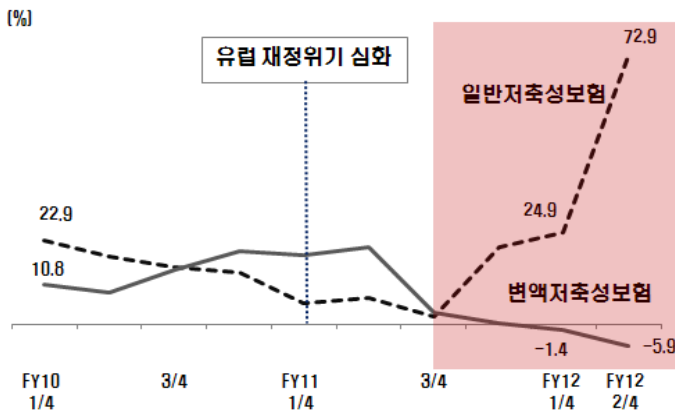
20) 한국은행은 7월 12일과 10월 11일 각각 0.25%p씩 기준금리를 인하함.

- 한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 개인연금은 10% 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FY2012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3월 2,000선을 상회하던 KOSPI지수는 2012년 7월 1,800대 초반까지 하락한 후 2012년 9월 말 1,996 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변액저축성보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침.

〈그림 IV-8〉 저축성보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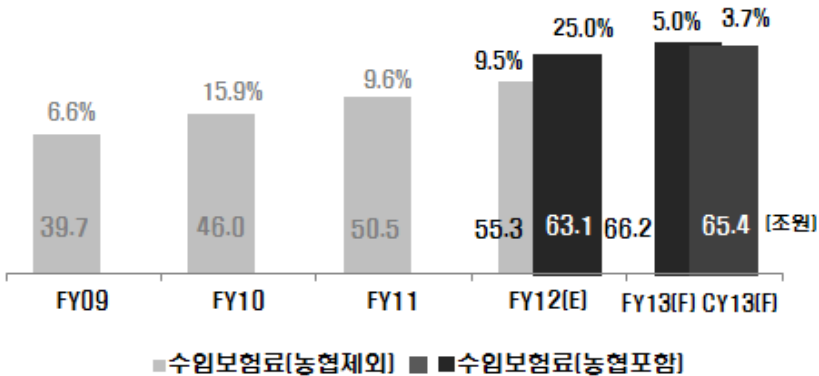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하반기 저축성보험 수요가 일반저축성보험으로 몰리면서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 FY201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변액저축성보험의 저성장으로 5.0%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3에도 저금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의 반사이익도 예상됨.
- 그러나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을 견인한 생명표 개정, 세제개편 등의 효과가 작아지면서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유럽재정위기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저성장이 전망되나 기저효과 등으로 FY2012에 비해 성장세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0.8	0.0	300,484 (316,288)	1.1 (6.4)	320,637	1.4	319,607	1.0
저축성	15.9	9.6	552,739 (630,943)	9.5 (25.0)	661,772	5.0	654,004	3.7
개인계	8.7	5.9	853,223 (947,232)	6.4 (18.1)	982,409	3.7	973,611	2.8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3) FY2012(E)의 괄호 안 숫자는 농협생명을 포함한 수치임.

나.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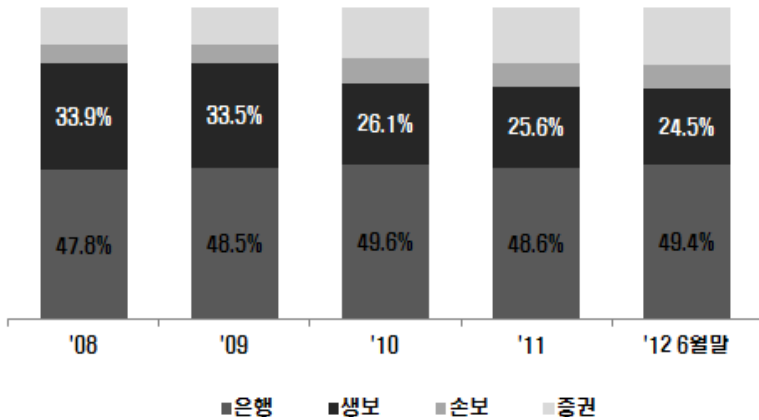
- FY2012 상반기 일반단체보험은 0.3%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 가속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3/4분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FY2012 연간으로는 10%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퇴직연금의 모집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저변 확대가 예상됨.
- 또한 퇴직자의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이전되고 추가납입도 가능한 IRP 시장의 확대도 예상됨.

-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부터는 큰 변화없이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V-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11.0% 수준임.
 - 5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7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1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IV-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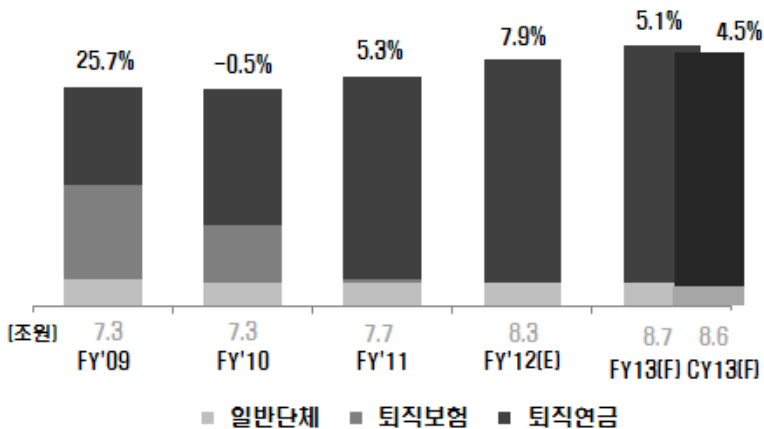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99,724	43,461	17,800	4,695	773	1,007	167,460
(B)전체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7.8	24.4	32.5	42.8	54.2	77.9	11.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2.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

- FY2013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계속보험료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5.3%의 증가가 전망됨.
 - FY2013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등의 긍정적 요인과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 등 부정적 요인 상존으로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보험 계약의 퇴직연금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기존 계약의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에 따라 고용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일반단체보험은 FY2013에도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V-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대기업의 신규가입을 유치하려는 업권 간 경쟁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FY2012와 큰 변화없이 20%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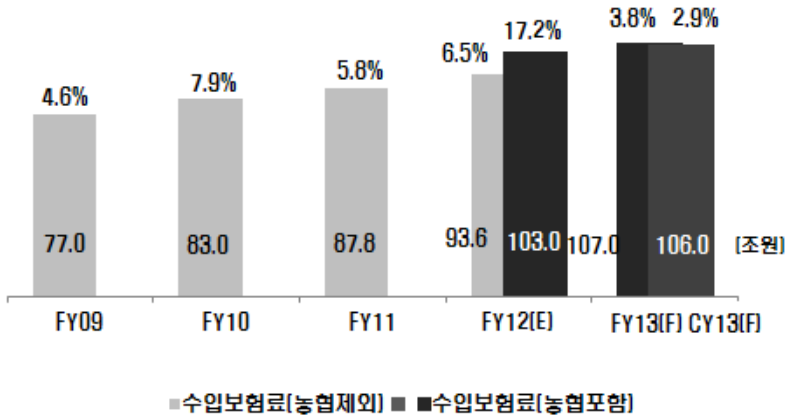
다. 생명보험 종합

-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과 퇴직연금 중심의 단체보험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FY2011보다 0.7%p 높은 6.5%의 성장이 예상됨.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소폭 성장에 그치는 반면 저축성보험이 저금리 환경과 제도적 요인 등으로 고성장하면서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7.9%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회복 지연과 제도적 요인 소진 등에 따른 개인보험의 저성장과 단체보험의 완만한 성장세로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보험의 성장세는 FY2012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유지율 개선에 따른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 유지와 함께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신상품 출시에 따른 수요확대도 예상됨.
 -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임.
 - 일반저축성보험은 제도적인 요인의 소진으로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 또한 주식시장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계속보험료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 퇴직연금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억 원, %)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8.7	5.9	853,223 (947,232)	6.4 (18.1)	982,409	3.7	973,611	2.8
단체	-0.5	5.3	82,557	7.9	86,970	5.3	86,284	4.5
합계	7.9	5.8	935,780 (1,029,789)	6.5 (17.2)	1,069,379	3.8	1,059,895	2.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2(E)의 괄호 안 숫자는 농협생명을 포함한 수치임.

〈농협 생명보험 개요〉

- 2011년 3월 4일 신·경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제로 운영되어오던 농협보험이 2012년 3월 2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에 진입함.
 - 농업협동조합법 내에 보험업법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협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분리하여 출범하였으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
 - FY2012 1/4분기 말 농협생명보험의 자산규모는 38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생명보험 자산 중 7.7%를 차지하며 수입보험료는 2조 3,000억 원으로 대형 3사에 이어 4위 수준인 9.4%의 점유율을 차지함.

- 농협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단체보험을 제외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농협생명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은 생사혼합보험이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각각 34.3%, 26.0%를 차지함.

〈표 IV-4〉 농협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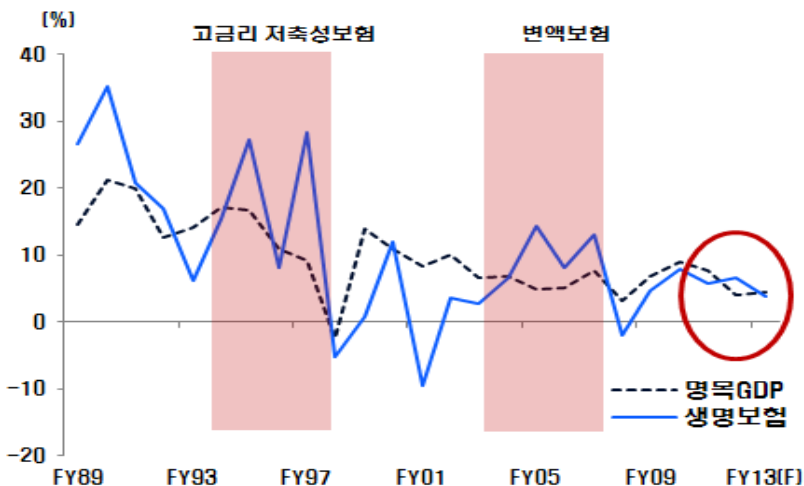
종목	비중	비고
전체 원수보험료	9.4%	전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4위 수준
보장성보험	5.0%	일반보장성보험은 5.2% 차지, 변액보장성은 없음
저축성보험	12.4%	일반저축성보험은 18.3% 차지, 변액저축성은 없음
단체보험	0.0%	단체보험은 판매하지 않음

주: FY2012 1/4분기 실적 기준이며, 비중은 전체 생명보험 원수보험료에서 농협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임.

- FY2013 생명보험은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함.
 - 첫째,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13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가의 종신보험 수요확대가 기대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
 - 둘째, 2013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주식시장 회복지연과 소비자 신뢰 악화로 변액저축성보험 시장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넷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IRP 시장의 신규 수요 창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FY2012 명목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도 세계개편으로 인한 일반저축성 보험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생명보험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할 것임.

〈그림 IV-13〉 명목 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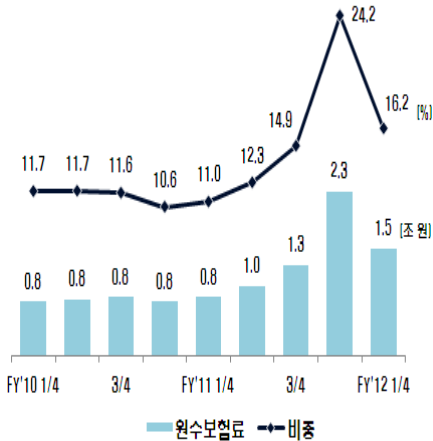
가. 장기손해보험

-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의 판매 증가와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1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하면 증가율이 20.9%에 이를 것임.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금융회사들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하여 저축성보험 신규판매에 주력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34.1% 증가가 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하면 46.5% 증가할 것임.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유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8.9% 증가가 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할 경우 증가율은 9.7%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개선²¹⁾으로 잠재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 위험 관리 상품²²⁾이 출시되는 등 업계의 판매 확대 노력이 지속되면서 15.7%,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27.6%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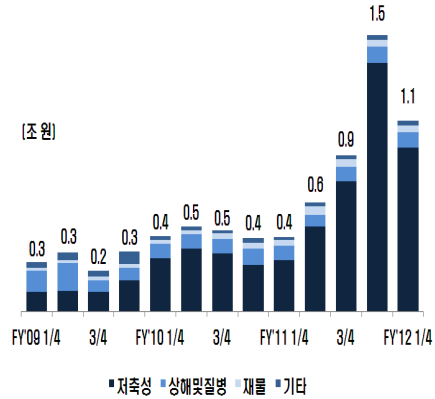
21)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으로 재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2) 재물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예: 화재, 배상책임, 상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상품임.

〈그림 IV-14〉 장기손해보험 내 방카슈랑스 비중 〈그림 IV-15〉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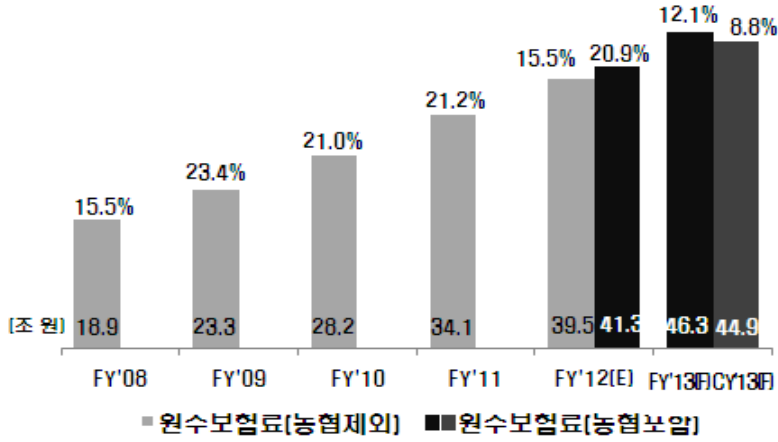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은 12.1%로 둔화될 전망이다.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입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들의 금리 부담과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강화 움직임 등 신규판매 제약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22.7% 증가가 전망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²³⁾에 따른 신규수요 확대 효과보다 보험료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율이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8.6%로 둔화될 전망이다.

23)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림 IV-1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 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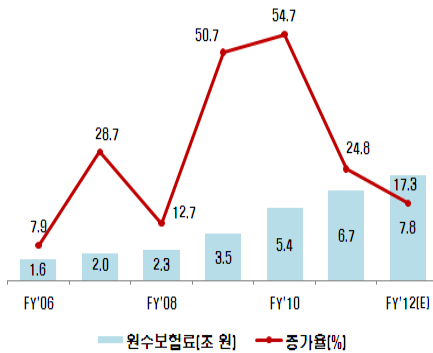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저축성	59.9	55.8	142,786 (130,685)	46.5 (34.1)	175,143	22.7	165,998	16.3
상해·질병	15.1	11.4	160,210 (159,010)	9.7 (8.9)	172,475	7.7	169,156	5.6
재물	16.9	33.1	36,994 (33,558)	27.6 (15.7)	40,168	8.6	39,482	6.7
기타 ¹⁾	8.2	3.9	72,712 (71,253)	5.5 (3.4)	74,751	2.8	74,198	2.0
장기손보	21.0	21.2	412,703 (394,505)	20.9 (15.5)	462,537	12.1	448,833	8.8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2)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한 수치임.

나.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17.3% 증가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²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7.0% 증가가 예상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근퇴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해졌으나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²⁵⁾에 따른 퇴직연금 전환수요가 소진되어 증가율은 9.8%가 될 것임.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연금부문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FY2011보다 0.5%p 높은 11.5%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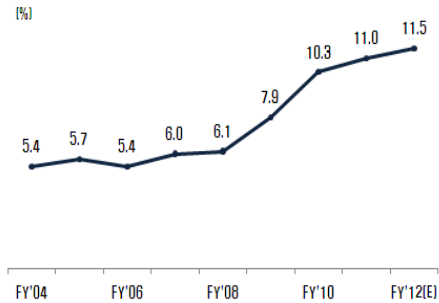
〈그림 IV-17〉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주: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V-18〉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



주: 비중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연금부문이 차지하는 점유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4)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25)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신규가입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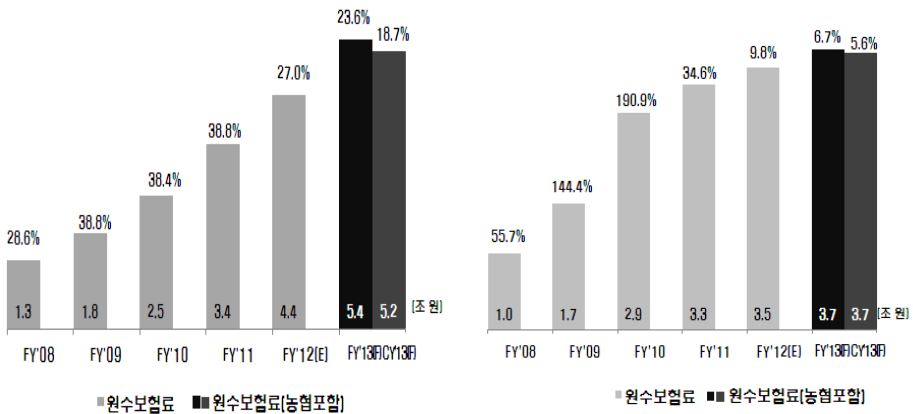
■ FY2013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16.1%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고령화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케팅 측면에서 세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되어 23.6% 증가가 전망됨.

－ 「조세제한특별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혜택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고,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20%에서 15%로 축소될 예정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²⁶⁾, IRP 시장 확대 등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대부분 완료²⁷⁾되어 증가율은 6.7%가 될 전망이다.

〈그림 IV-1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V-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26)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됨(2011년: 25%, 2012년: 20%).

27) 2011년 12월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6%로 추정됨(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표 IV-6〉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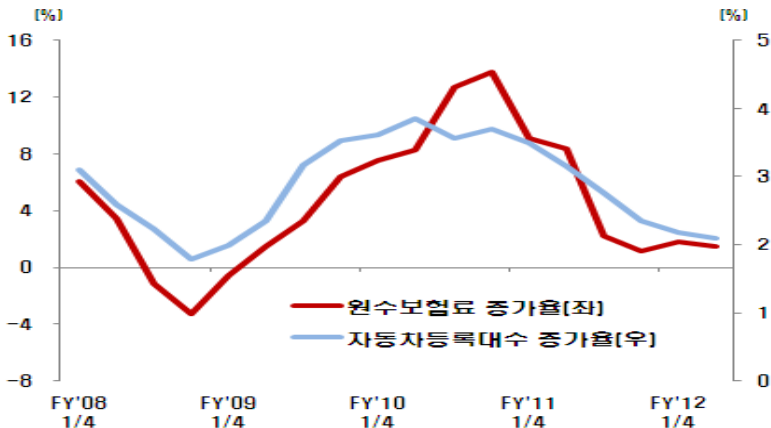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38.4	38.8	43,537	27.0	53,815	23.6	51,665	18.7
퇴직보험	-39.1	-84.2	-	-	-	-	-	-
퇴직연금	190.9	34.6	34,910	9.8	37,265	6.7	36,866	5.6
합계	54.7	24.8	78,448	17.3	91,080	16.1	88,531	12.9

다. 자동차보험

■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하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FY2011보다 3.4%p 하락한 1.7%로 낮아질 것이며,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2.0% 증가할 것임.

○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손해율 개선에 따른 담보별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 연동 특약 확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 등이 있음.

〈그림 IV-2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도 존재하지 않아 2.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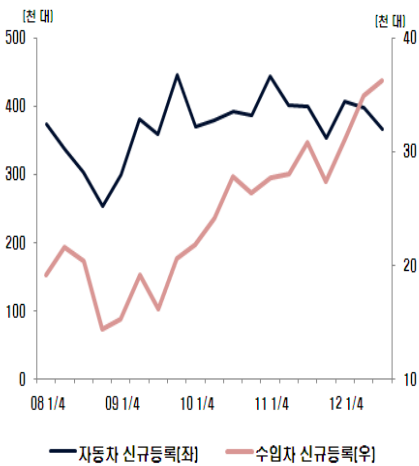
○ 자동차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큰 폭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손해를 안정화로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 손해율²⁸⁾은 정률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 이후 발생손해액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나 보험료 인하 및 할인형 상품²⁹⁾ 판매 증가로 경과보험료도 줄어들어 FY2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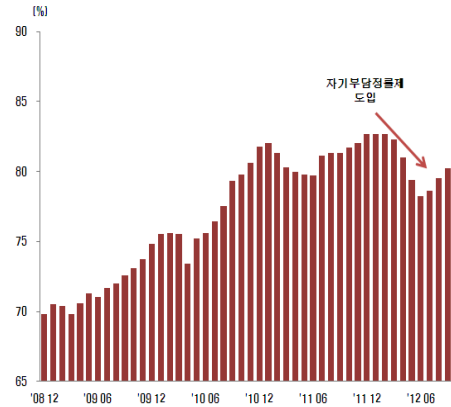
－ 한편, 2012년 상반기 하락하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7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인하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음.

○ 단, 수입차 확대에 의한 고액 담보물건의 증가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V-22〉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그림 IV-23〉 자동차보험 월별 경과손해율



자료: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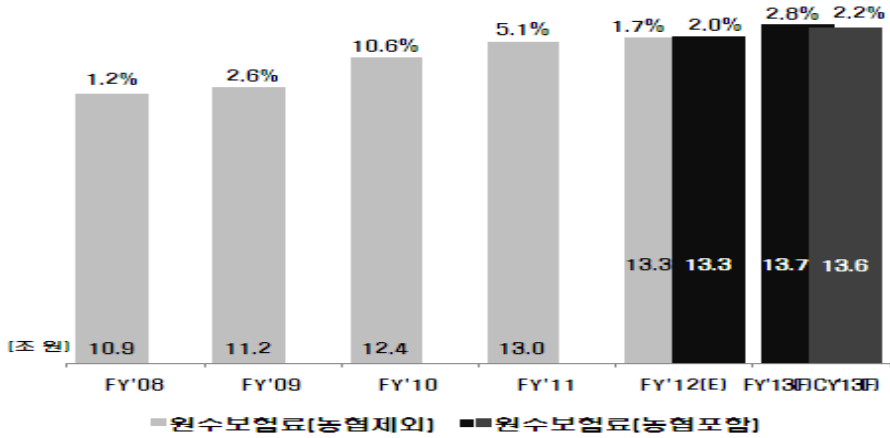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8)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29) 주행거리 연동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이 있음.

〈그림 IV-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0.6	5.1	133,002 (132,586)	2.0 (1.7)	136,786	2.8	135,955	2.2

주: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한 수치임.

라. 일반손해보험

■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및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7.2% 증가가 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하면 12.9%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침체로 잠재 수요 확대가 부진한데다 「화보법」 개정³⁰⁾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가 특종보험의 종합보험과

30)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

장기 재물보험으로 분산되면서 1.1% 감소가 예상된다.

- 그러나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에는 농협손해보험 화재보험의 비중이 커서 34.3% 증가가 예상된다.³¹⁾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1 고성장을 기록하였던 해양종합보험이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적하보험이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쳐 5.8% 감소가 예상된다.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4.9% 감소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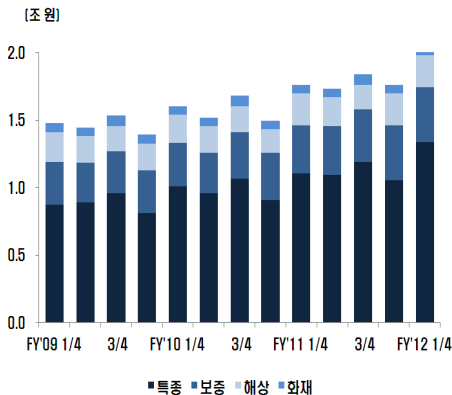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요금 관련 신용보증보험의 고성장으로 7.9% 증가가 예상되며,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통신요금 관련 신용보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9.0%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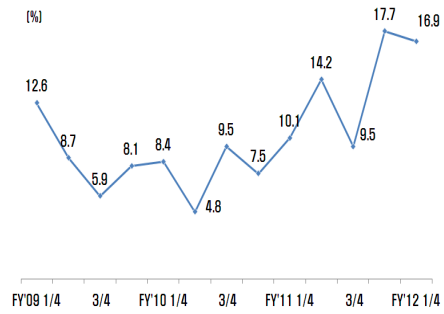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술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책임 및 기타 특종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10.1% 증가가 예상된다.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6.5% 증가할 것임.

〈그림 IV-25〉 종목별 원수보험료



〈그림 IV-26〉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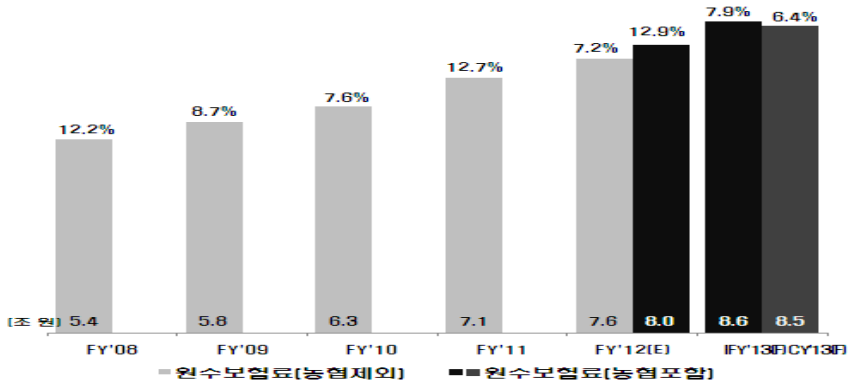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31) FY2012 1/4분기 기준 농협손해보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가 전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임(〈표 IV-10〉 참조).

- 기술보험의 경우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4.8%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책임보험의 경우 영업배상책임 및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관련 물건이 늘어나면서 8.2% 증가가 예상됨.
 - 기타 특종보험의 경우 휴대폰 관련 보험의 급성장에 힘입어 47.4%의 고성장이 예상됨.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보증 및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FY2012보다 소폭 감소한 7.9%가 될 것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로 소폭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지속되면서 1.3% 증가에 그칠 것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물동량 소폭 증가에 따른 적하보험 저성장과 선박 수주 규모 축소 등에 의한 선박보험 부진이 예상되나,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3.9% 성장할 전망이다.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와 건물 및 토목건설 관련 이행 보증보험 시장의 소폭 회복으로 6.0%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9.6% 증가가 전망됨.
 - 종업원 복지확대를 위한 기업의 단체 상해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배상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책임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타 특종보험은 휴대폰 관련 보험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9%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

〈그림 IV-27〉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8〉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3.7	-0.9	3,589 (2,606)	34.3 (-1.1)	3,584	1.3	3,564	0.7		
해상	-4.1	12.7	8,269 (8,191)	-4.9 (-5.8)	8,595	3.9	8,626	4.3		
보증	6.4	16.1	16,545 (16,372)	9.0 (7.9)	17,536	6.0	17,302	4.6		
특종 ¹⁾	11.5	12.5	51,698 (48,857)	16.5 (10.1)	56,667	9.6	55,714	7.8		
합계	7.6	12.7	80,052 (76,027)	12.9 (7.2)	86,383	7.9	85,206	6.4		

주: 1)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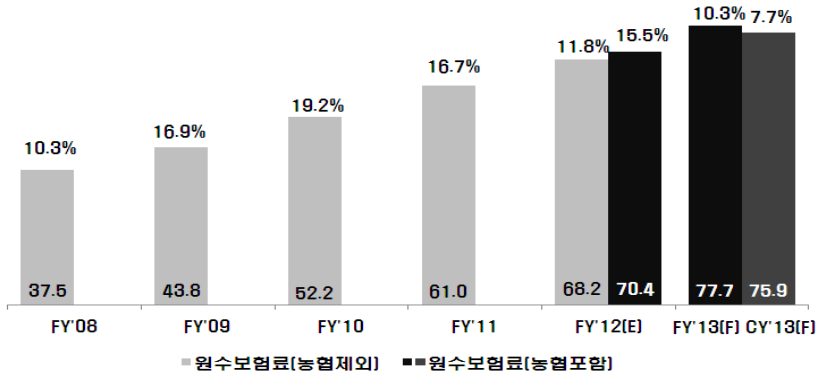
2)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한 수치임.

마. 손해보험 종합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저성장이 예상되나 장기 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11.8% 증가가 예상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5.5% 증가).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중심의 저축성보험 증가와 재물보험 판매 실적의 지속적 증가로 15.5% 성장이 예상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20.9% 증가).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연금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은 연금 시장 확대로 개인연금은 27.0%, 퇴직연금은 9.8% 증가가 예상된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담보별 보험료 인하와 할인형 상품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의 저성장이 예상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2.0% 증가).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및 해상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특종보험 증가세로 7.2% 성장할 것임(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2.9% 증가).

-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0.3%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 중심의 저축성보험, 재물보험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된 12.1%가 될 것임.
 -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마케팅 측면에서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23.6% 증가가 전망되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수요의 소진 이후 신규 가입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6.7%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위축 등으로 2.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 및 휴대폰 관련 시장 성장에 따른 보증 및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7.9% 증가가 전망됨.

〈그림 IV-2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FY2013(F)은 2013년 4월~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은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표 IV-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CY2013(F)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21.2	394,505	15.5	412,703	20.9	462,537	12.1	448,833	8.8
저축성	55.8	130,685	34.1	142,786	46.5	175,143	22.7	165,998	16.3
상해·질병	11.4	159,010	8.9	160,210	9.7	172,475	7.7	169,156	5.6
재물	33.1	33,558	15.7	36,994	27.6	40,168	8.6	39,482	6.7
기타 ¹⁾	3.9	71,253	3.4	72,712	5.5	74,751	2.8	74,198	2.0
연금부문	24.8	78,448	17.3	78,448	17.3	91,080	16.1	88,531	12.9
개인연금	38.8	43,537	27.0	43,537	27.0	53,815	23.6	51,665	18.7
퇴직보험	-84.2	-	-	-	-	-	-	-	-
퇴직연금	34.6	34,910	9.8	34,910	9.8	37,265	6.7	36,866	5.6
자동차	5.1	132,586	1.7	133,002	2.0	136,786	2.8	135,955	2.2
일반손보	12.7	76,027	7.2	80,052	12.9	86,383	7.9	85,206	6.4
화재	-0.9	2,606	-1.1	3,539	34.3	3,584	1.3	3,564	0.7
해상	12.7	8,191	-5.8	8,269	-4.9	8,595	3.9	8,626	4.3
보증	16.1	16,372	7.9	16,545	9.0	17,536	6.0	17,302	4.6
특종 ²⁾	12.5	48,857	10.1	51,698	16.5	56,667	9.6	55,714	7.8
전체	16.7	681,566	11.8	704,204	15.5	776,786	10.3	758,526	7.7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IV-10〉 농협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종목	비중	비고
전체 원수보험료	2.6%	전체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9위 수준
장기손해보험	3.5%	저축성 4.3%, 상해 1.5%, 재물 13.2%, 운전자 8.2%
연금부분	0%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상품은 판매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0.2%	농기계 관련 상품 일부만을 판매하고 있음
일반손해보험	4.4%	화재 19.6%, 해상 0.6%, 보증 0.6%, 특종 5.8%

주: FY2012 1/4분기 실적 기준이며, 비중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농협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임.

3. 보험산업 종합

- FY2013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률이 모두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1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87.8	5.8	93.6	6.5	103.0	17.2	106.9	3.8
손해보험	61.0	16.7	68.2	11.8	70.4	15.5	77.7	10.3
전체	148.8	10.0	161.7	8.7	173.4	16.5	184.6	6.5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FY2013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³²⁾(총보험료/명목GDP³³⁾)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2%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2)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2와 동일한 7.7%, 손해보험 침투도는 0.3%p 상승한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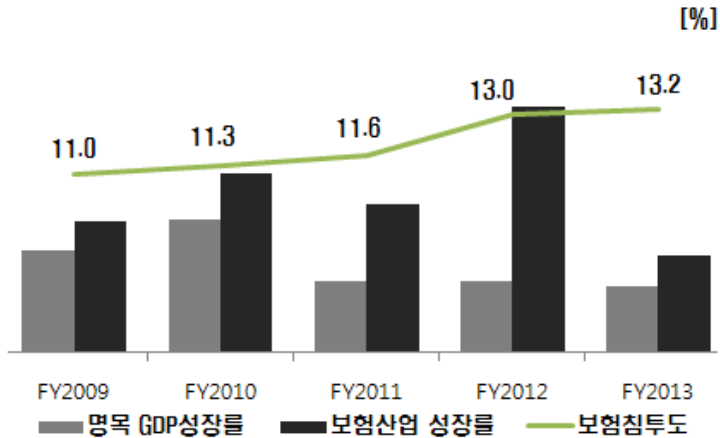
〈표 IV-1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7.0	7.0	6.8	7.0	7.7	7.7
손해보험	4.0	4.4	4.7	5.1	5.3	5.6
전체	11.0	11.3	11.6	12.1	13.0	13.2

주: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 / 명목GDP

〈그림 IV-29〉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주: 농협보험을 포함함.

■ FY2013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³⁴⁾(총보험료/총인구수)는 367만 6,000원으로 FY2012보다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밀도는 FY2012에 비해 3.4% 증가한 212만 9,000원, 손해보험 밀도는 9.8% 증가한 154만 7,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34)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표 IV-13〉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1,579	1,698	1,765	1,871	2,059	2,129
손해보험	899	1,069	1,225	1,363	1,408	1,547
전체	2,478	2,767	2,989	3,234	3,468	3,676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총인구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2년 11월 자료를 사용함.